

축 사(안)

먼저 미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지역에 부처님의 법음이 널리
퍼지게 된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준비되는 뉴욕 불교 라디오
방송은 미주 승가회 대표이자 뉴욕
불교사원연합회 회장인 원영스님을
중심으로 이 지역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합쳐 이룬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이는 승재가의 협력이 돋보이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대표 소임을 맡게 된
저로서는 종단의 새로운 비전을 ‘소통과
화합’에서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교구 신설’ 및 ‘국제포교 네트워크
강화’를 종단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해외 교민사회에서 불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국내에서 보다 훨씬 더 강인한
신심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미주 지역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시며, 이를 실천하고 계시는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뉴욕 라디오 방송이 많은 교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걸맞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 교민사회에 많은 불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불자님들 가정과 직장에 항상 부처님이 머무시고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